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분석

손 향 미[†] 조 현 주*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경북대학교 가정교육학과*

A Study on Hairstyle in Style of Subculture

Hyang Mi Son[†] and Hyun Ju Cho*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0. 5. 31. 접수일 : 2010. 7. 9. 수정완료일 : 2010. 8. 11.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concept of subculture and style of subculture by each age and to analyze internal meaning of hairstyle in subculture. The study carried out literary review on the basis of books related to subculture and hairstyle focused on the cradle of subculture and preceding researches of subculture style, and strived to find internal meaning of hairstyle by describing in-depth descriptive methods of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study limited its range in the hairstyle in style of subculture from 1930s to early 1990s commonly described in subculture related books. As a result, there were natural pattern, cutting pattern, exaggerated pattern, set pattern, braid pattern, color pattern and addition pattern in types of hairstyle in subculture. The hairstyle in subculture symbolizes their internal value and ideology and hairstyle is a kind of language to express identity of subculture.

Key words: subculture(하위문화), hairstyle(헤어스타일), Identity(정체성), style of subculture(하위문화 스타일), type of hairstyle(헤어스타일 유형).

I. 서 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젊은 세대의 영향이 크며, 후반부로 오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복식문화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젊은이들의 패션인 하위문화 스타일은 기존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이 스타일로 표현된 것으로서, 신체와 의복을 통한 금기

화 된 표현을 주된 내용으로 삼으며, 그들의 문화적·저항적 힘은 지배문화의 금기를 극복한다. 이들 하위문화 스타일이 지배적 패션문화에 가하는 문화적 충격과 낯설음은 오늘날 하이 패션디자인의 원천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어느 시대보다도 주목되고 있다¹⁾.

하위문화 중 대표적인 집단인 히피는 헤어스타일을 이용하여 자유롭고 개성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외부와 구별하는 기호적 수단으로 사용하였으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5-1-C00072).

[†] 교신저자 E-mail : dior-1004@hanmail.net

며, 핑크는 극단적인 헤어스타일인 모히칸족 헤어, 스파이크 헤어, 핑크 그린 염색 등의 헤어스타일로 분노와 허무감을 표현하는 등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한다²⁾.

하위문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양미경(2003)³⁾은 하위문화 스타일 패션의 발생지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930년대에서 1990년대 이르는 스타일의 변천 양상과 스타일의 특징을 연구하였으며, 임은혁(2003)⁴⁾은 194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하위문화 스타일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반면, 하위문화와 관련된 헤어스타일 연구로 박길순과 이수인(1999)⁵⁾은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을, 이연희와 김주애(2005)⁶⁾는 닥벳 머리형을 중심으로 핑크 헤어스타일의 근원을 고찰하였으며, 김정미와 설유진(2006)⁷⁾은 1950년대 테디보이, 1960년대 모즈와 히피, 1970년대 라스타 파리아나과 핑크, 1980년대 고스, 1990년대 사이버 핑크에서의 하위문화 헤어스타일을 미용 기술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패션 분야에서는 하위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하위문화의 헤어스타일은 특정 하위문화를 대상으로 하거나 각 시대의 대표적인 하위문화만을 대상으로 단편적 기술적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하위문화 출현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하위문화 전반의 헤어스타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헤어스타일의 유형 분류에 따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의 유형 분류에 따른 내적 의미를 통해 하위문화 헤어스타일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다양하고 개성화된 현대 헤어스타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하위문화 헤어스타일을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하위문화의 개념과 시대별 하위문화 스타일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헤어스타일의 유형 분류를 통해 하위문화 헤어스타일이 가지는 내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하위문화 발생지를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와 헤어스타일 관련 서적 및 하위문화 스타일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심층적 기술 방법을 기술하여 내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하위문화 관련 서적에 공통으로 기술된 193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하위문화 스타일로, 하위문화의 시대 구분은 각 하위문화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은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하위문화

문화는 어느 특정한 사회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 신념, 태도, 그리고 특징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은 그 사회의 모든 구조, 의식, 몸짓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의된 예술 형태로도 표출된다고 하였다. 어떤 사회든 지배적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여러 개의 문화들이 생성된다. 지배적 가치 체계는 동질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배적 가치와 관념의 지속적인 순화와 적응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화적 형식이 계급문화이다.

- 1) 양미경,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 2.
- 2) 손향미, “현대 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권 11호 (2005), pp. 1444-1453.
- 3) 양미경,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4) 임은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5) 박길순, 이수인,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7권 4호 (1999), pp. 567-577.
- 6) 이연희, 김주애, “핑크 헤어스타일의 근원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9권 2호 (2005), pp. 242-253.
- 7) 김정미, 설유진,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권 2호 (2006), pp. 225-232.

하위문화는 이러한 지배문화에 대한 하위 집합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하위문화는 더 큰 범주의 계급문화의 요소들을 공유하지만 그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하위문화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 속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이다⁸⁾.

하위문화는 주류문화로부터 주변부화된 것,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 당한 것, 동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적 형태와는 다른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로 폭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위문화는 한편으로는 그 내부의 능동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류문화를 거부한 것이며,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를 배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위문화의 주체형태는 계급론적으로는 노동자와 하층 프롤레타리아의 위치를, 세대론적으로는 부모들의 기성문화에 반대되는 청년문화의 위치를, 성애론적으로는 이성애에 반대되는 동성애의 위치를, 인종적으로는 백인정체성에 반대되는 유색(혼혈인) 정체성의 위치 속에서 형성된다⁹⁾. 즉, 하위문화를 종속적인 구조적 위치에 있는 집단이 지배적인 의미 체계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시킨 의미 체계 표현 양식 및 생활방식으로 규정한다.

이에 영국 문화 연구의 요람인 버밍엄대학교 현대 문화 연구소인 CCCS(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의 연구자들은 하위문화가 지배문화적 가치에 대해 저항하는 문화로 상징적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하위문화들은 의상적 행위적 코드의 위반, 유행 등과 같은 금지된 형태로 금지된 내용(계급의식, 차별의식)을 표현하는 불경스런 집합들이며, 종종 그 의미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정의된다¹⁰⁾.

하위문화는 그들만의 지역적, 사회적, 의상적 경계를 한정해줌으로써 타자와 다른 독립성을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의상과 신체 장식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배타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구성원들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으로써, 스타일은 하위문화 정체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다시 말하면, 하위문화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하위집단은 그들 각자의 스타일을 지닌다. 각 하위집단에 따라 선택되는 표현 요소들은 하위문화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스타일들은 특정한 행동을 통하여 하위문화집단 내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시키게 한다. 이 소속감은 하위문화 체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발전되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이루고, 이런 집단 속의 구성원들에게는 서로 간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가 속한 하위문화와 자신과의 동일성(identification) 형성의 기반이 된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문화는 지배문화로부터 이탈된 현상이며, 광범위한 문화 즉, 보다 큰 문화적 네트워크 내에서 보다 작은 부분 집합인 소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로 정의된다. 또한 의복, 신체 장식들의 가시적 상징으로써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하위문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대별 하위문화 스타일

하위문화 스타일은 1940년대 할렘 스트리트(Harlem street), 파리의 상제르망(Saint Germain), 1950년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 1960년대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Canaby street)와 킹스로드(King's road),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 하이트 에쉬베리(Haight Ashbury)와 캘리포니아의 라 쥘라 비치(La Jolla Beach), 1980년대 런던 브롱크스(Bronxs), 1990년대 런던의 소호(Soho)를 중심으로 펼쳐졌다¹³⁾.

1) 193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하위문화 스타일은 1930년대 말 뉴욕 할렘의 재

8) 김창남,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현에 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8-9.

9) 이동연, *하위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서울: 문화과학사, 1997), pp. 90-91.

10) Dick Hebdige,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1979), p. 75.

11)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Surfers Souldies Skinheade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V&M Museun, 1996), p. 3.

12) 김문섭, “사회구조와 청소년의 비행적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학회지* 2권 2호 (1999), p. 17.

13) 박길순, 손향미, 박수진, 윤소영, *패션 이미지 스타일링* (대전: 궁미디어, 2009), p. 48.

즈 문화에서 비롯된 주티(Zooties)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서구에서 과거 전통적인 남성복에 주어진 신체적인 장식에 대한 절제에 대한 반항을 상징하는데, 길치장이 번지르르한 수트와 콩크 헤어스타일(conked hairstyle)로 ‘남성적인 절제’의 자유를 파괴하고 일종의 상징으로써 그들의 하위문화적 스타일을 확립하였다¹⁴⁾. 파리의 젊은 댄디 집단인 자주(Zazous)도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스타일이다.

2) 194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1940년대 웨스턴 스타일(western style)은 서부 개척 시대를 연상케 하며, 미국의 신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부츠, 스테트슨(stetson) 모자, 자수된 재킷, 부트 레이스(bootlace) 타이 등 초기에는 미국 남서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모터바이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이커(Bikers)는 남성적 이미지와 자유를 표현하며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¹⁵⁾.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로 구성된 모터사이클 갱에서 보여진 이 스타일은 범죄자들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군복 아이템의 패드(fad) 현상을 불러왔다.

3) 195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1950년대 영국으로 이민 온 서인도 제도 인디언들의 의상 스타일인 카리비안 스타일(caribbean style)은 가볍고 밝은 색상의 옷감을 사용한 독특한 맞춤형 의상 경향으로, 이후 이들 이민자의 드레스 스타일의 다양성은 영국 하위문화 스타일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한 요인이 되었다¹⁶⁾. 세계대전 후 사회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채 어려운 재즈에 심취한 힙스터라는 젊은이들이 비트닉과 테디보이 집

단으로 나뉘게 된다¹⁷⁾. 테디보이(Teddy Boys)는 최초로 인지되었던 영국 청소년 집단의 멤버들로 귀족적인 에드워드안 스타일을 흉내내며 사회에 대하여 초연한 태도를 취하였다¹⁸⁾. 이들의 헤어스타일은 미국 군인 스타일의 크루 컷(crew cut)이나 긴 머리에 머릿기름을 잔뜩 발라 뒤로 빗어 넘겨 목 뒷부분에서 뾰족하게 만든 덕스 테일(duck's tail) 헤어스타일, 구렛나루 등의 미국적인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빌려왔다¹⁹⁾. 1950년대 후반 모던 재즈에 심취한 모더니스트 집단의 등장은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했으며, 포크 음악에 전통을 둔 포크 스타일(folky style)은 천연섬유와 천연염료로 나온 자연적 색상과 손으로 수 놓은 자수등의 사용이 특징으로, 이러한 자연 친화적 미학과 태도는 1960년대 히피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의 우상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스타일이 대표적이었던 로커빌리 스타일(rockabilly style)은 청결함과 공이 많이 든 스타일의 복장으로 가난한 청소년들의 존경과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모터사이클 속도를 100mph²¹⁾를 초과하는 통과의례의 슬랭에서 온 톤 업 보이 스타일(ton-up boy style)은 영화 ‘더 와일드 원’이 중요한 스타일의 영감이었다. 서퍼 스타일(surfer style)은 태양과 모래사장, 섹스, 개조한 자동차, 경주 등과 관련된 생활방식으로 극단적으로 한가롭게 의복 스타일을 루즈하고 캐주얼과 곱슬머리 헤어컷이 나타났다.

4) 196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1960년대는 모즈(Mods) 스타일은 세련된 라인을 선호하였고²²⁾, 로커(Rockers)는 미국의 바이커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움직임으로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였다. 영국에 거주하는 서인도 출

14) 이경수, “스트리트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Young Women's Style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 33-34.

15) 이경수, op. cit., pp. 35-36.

16) Ted Polhemus,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1994), p. 17.

17) 김현섭, *서태지 담론: 신화의 부활* (서울: 책이 있는 마을, 2001), p. 33.

18) Maria Costantino, *Men's Fashion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Frock Coats to Intelligent Fibres* (New York: Costume & Fashion Press, 1997), p. 138.

19) Maria Costantino, op. cit., p. 138.

20) 양미경, op. cit., p. 43.

21) 약 시속 160km

22) Ted Polhemus, op. cit., p. 51.

신 혹은 청년들인 루드보이(Rude Boys) 스타일은 자메이카 최초의 순수 하위문화 스타일이며²³⁾, 사이키델릭(psychedelic)은 환각을 일으키는 LSD 마약에 둘러싸여진 반문화에 관련된 젊은이들로 스타일은 이름 그대로 커다란 환각이었다²⁴⁾. 저항문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히피(Hippies)²⁵⁾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 자유로운 민속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동경과 실현을 삶의 목표로 삼은 집단으로 스타일은 에스닉, 노스탈직, 작업복, 군복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리저(greaser) 스타일은 바이커 하위문화에 의해 영감을 받은 스타일로 나치를 연상케 하는 휘장(swastikas)과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모자 등으로 나타났다. 스킨헤드(Skinheads)는 무정함, 남성다움, 노동계급다움과 같은 가치와 소통하고 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다²⁶⁾.

5) 197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1970년대는 미국 흑인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화려함을 과시하는 펑크(Funks), 양성적인 외모로 성개념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한 글램(Glam)²⁷⁾,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표현한 라스타파리언(Rastafarians)²⁸⁾과 헤비메탈 하위문화인 긴 머리의 헤드뱅어 스타일이 있다.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을 지칭하던 스케이터는 스노우보더들에게도 적용되며, 의도적으로 험오스럽고 역겨운 스타일을 창조한 펑크(Punks)가 대표적이다²⁹⁾.

6) 198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1980년대로 이어지면서 뉴 로맨틱스(New Romantics)가 연극적 의상을 수용하는 클럽에서 시작되었고, 음침한 중세의 성, 흡혈귀 등의 고딕 이미지를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결합시킨 고딕(goth) 스타일, 대조되는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슈트

특징적인 투 톤(Two-tone), 1950년대 미국 로커빌리와 1970년대 영국 펑크와의 융합인 사이코빌리(psychobilli) 스타일은 앞이마에 늘어 붙인 남성의 고수머리가 초록이나 자주색으로 염색되었다. 페티시즘이 외설적인 맥락에서 제도화 된 퍼브(Pervs)는 ‘몸을 감싸면서 숨기는’ 옷을 의미했으나, 스타일의 전환을 맞이하여 ‘몸을 과시하는’ 옷으로 전개되어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움직임이 되었다. 랩, DJ, 그래피티 아트와 브레이크 댄싱의 기본 요소로 구성된 힙합(Hip-Hop) 스타일은 올드 스쿨(old school), 갱스터(gangsta), 그리고 비보이와 프라이걸(B-boys & Fly girls)로 나뉘며, 백인 중심의 소비문화를 조롱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열망하는 양면적 기반을 토대로 구축된 스타일로 저항적 측면과 상향지향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으며, 저급문화가 고급문화로 역류하는 문화적 역전 현상을 보인다³⁰⁾. 라가머핀(raggamuffin)은 자메이카에 새로운 음악과 춤이 나타나 새로운 의상과 결합된 스타일로 혁신적인 의상과 장식 스타일 사용 방법들에서 두드러진다³¹⁾. 뉴에이지 트레블러(new age traveller)의 특징은 자연에의 친화와 뉴 에이지 정신으로 주류에서는 환경(eco) 운동으로 나타났다. 거대한 스케일의 옥외 댄스 파티인 레이버 스타일(raver style)은 도덕적 해이와 나태함을 지나치게 큰 크기의 의복으로 표현되어졌다. 인디키드 스타일(indie kid style)은 그런지의 다름 이름으로 많이 낡은 옷들의 혼합이 특징이다.

7)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1990년대엔 도시적인 보헤미아니즘에 뿌리를 둔 그런지(Grunge)는 값싸고 저속한 스타일이며, 테크노(techno) 스타일은 밀리터리 스타일의 공격적인 의상들로 특징 지워지고, 사이버 펑크 스타일은 가

23) Ted Polhemus, op. cit., p. 58.
 24) Ted Polhemus, op. cit., p.62.
 25) 공차숙, op. cit., p. 27.
 26) 양미경, op. cit., p. 71.
 27) 양미경, op. cit., p. 79.
 28)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op. cit.. p. 12.
 29) 공차숙, op. cit.. p. 54.
 30) 이정후, 양숙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복식 45권 (1999), p. 192.
 31) Ted Polhemus, op. cit., p. 111.

상 현실 속에서 과학 소설을 만난 것으로 핑크의 브리콜라지 기법을 사용해서 고립된 스타일들을 결합시킨다^{32,33)}.

이처럼 하위문화 스타일의 특징은 아방가르드하고 과격적인 것이 많으며, 때로는 과거의 것을 받아들여 새롭게 소화해 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매우 신선한 감각을 나타낸다. 또한, 하위문화 스타일은 각 하위문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원들의 주관적 경험과 가치를 하나의 통일체로 형성하는 메시지의 체계이다. 즉, 하위문화 구성원들은 상품에 부여된 주류사회의 고정적 의미를

과파하고 다른 의미로 재구성함으로써 그들만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만든다. 하위문화의 외향적 스타일은 일차적으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그들 문화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경계짓는 역할을 하고 내면적으로 스타일에 그들의 정서와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한다³⁴⁾.

의복과 헤어스타일 등의 외모, 음악,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스타일은 집단의 응집과 유효함을 제공하는 유력한 방법이며, 많은 경우 스타일은 하위문화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스타일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하위문화에 대해 말해준다³⁵⁾.

<표 1> 시대별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 시대 | 하위문화 스타일 | 헤어스타일 |
|--------|-------------------|---|
| 1930년대 | 주티(Zooties) | 콩크 머리(conked hair) |
| | 자주(Zazous) | 곱슬거리는 앞머리를 내린 긴 머리 |
| 1940년대 | 웨스턴 | 스테트슨(stetson) 모자 |
| | 바이커(Bikers) | 제트 헬멧 |
| 1950년대 | 카리비언 | 두상에 밀착된 헤어 |
| | 힙스터 | 검은 베레 |
| | 비트(Beats) | 긴 머리, 검은 베레 |
| | 테디보이(Teddy Boys) | 크루 컷(Crew cut), 덕스 테일(duck's tail) 헤어스타일 |
| | 모더니스트 | 페리코모 |
| | 포크 | 긴 머리 |
| | 로커빌리 | 엘비스 스타일(고수머리) |
| | 톤 업 보이(커피 바 카우보이) | 제트 헬멧 |
| 1960년대 | 서퍼 | 자연스런 염색머리, 곱슬머리, 긴 머리, |
| | 모드(Mods) | 짧고 단정한 머리(포크 파이 모자), 말아 올린(꼬마요정) 헤어스타일 |
| | 로커(Rockers) | 모비 캡(moby cap) |
| | 루드보이(Rude Boys) | 스키플 헤어 컷, 포크 파이 모자 |
| | 사이키델릭 | 긴 머리 |
| | 히피(Hippies) | 스트레이트 스타일, 아프로 스타일, 땅은 스타일, 굵은 웨이브 스타일, 흐트러진 스타일, 꽃장식 스타일 |
| | 그리저 | 긴 머리, 독인 군 군모, 나치의 철모 |
| | 스킨헤드(Skinheads) | 삭발 |

32) 임은혁, 김민자,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3호 (2003), p. 17.

33) 양미경, op. cit.

34) 공차숙, op. cit., p. 27

35) Ken Gelder and Sarah Thornton, *The Subcultures Reader* (London-New York: Routledge, 1997), p. 373.

<표 1> 계속

| 시대 | 하위문화 스타일 | 헤어스타일 | |
|-------------|-----------------------|------------------------------------|---------------------------|
| 1970년대 | 펑크(Funks) | 아프로 스타일, 펌프모바일 모자, 헌팅캡 | |
| | 글램(Glam) | (금색, 은색, 형광색) 염색머리 | |
| | 라스타파리언(Rastafarians) | 드레드락, 탬 모자 | |
| | 헤드뱅어 | 긴 머리, 푸들 헤어 컷 | |
| | 스케이터 | 염색하고 자른 머리, 염색한 긴 머리 | |
| | 펑크(Punks) | 스파이크 스타일, 흰색의 염색, 모히칸 스타일, 흐트러진 머리 | |
| 1980년대 | 뉴 로맨틱스(New Romantics) | 화이트 라스타, 크라운헬멧, 트리콘 모자 | |
| | 투 톤(Two-tone) | 포크 파이 모자 | |
| | 고스 | 부폰 헤어스타일 | |
| | 사이코빌리 | 염색된 헤어 | |
| | 퍼브(Pervs) 일명 페티시 | 정돈된 헤어 | |
| | 힙합 (Hip-Hop) | 올드스쿨 | Adidas cap, Kangol 모자 |
| | | 갱스터 | Watch cap |
| | | 비보이와 프라이걸 | 면도로 무늬를 넣은 짧은 머리, 라스타 드레드 |
| | 라가머핀 | 면도로 무늬를 넣은 짧은 머리 | |
| | 뉴에이지 트레블러 | 긴 머리, 염색머리, 땅은 머리, 모히칸 스타일, 라스타 | |
| 레이버(Ravers) | 페이지 보이 스타일, 반다나 | | |
| 인디키드 | 긴 머리 | | |
| 1990년대 | 그런지 | 긴 헝클러진 머리 | |
| | 테크노 | 테크노 컷, 야구모자 | |
| | 사이버펑크 | 펑크의 브리플라지 | |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시대별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을 정리하였다.

III.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분석

헤어스타일(hairstyle)은 머리카락을 커팅하고 스타일링하여 표현하는 것이다³⁶⁾. 스타일링(styling)³⁷⁾은 어떤 스타일을 부여하기 위해 제품의 기구 부분은 그대로 두고 외부 스타일만을 바꾸는 일로써, 헤어 스타일링은 인체의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모발을 대상으로 스타일만을 바꾸는 일이다. 이에 헤어스타일은 면도(자르는 것)나 땅아 늘어뜨리는 것,

묶는 것, 곱슬곱슬하게 하는 것, 헤어스타일 내에 지지 구조를 더하는 것, 가발이나 일부분에 머리카락을 더하는 것, 헤어스타일에 장식물을 더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³⁸⁾.

본 장에서는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스타일링 방법을 중심 즉, 무치장형, 제거형, 과장형, 정형, 땅은 형과 염색형, 그리고 첨가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무치장형(Natural Pattern)

헤어스타일의 무치장형은 아무런 장식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헤어스타일로 정의한다. 무치장형 헤어스타일에는 긴 머리 스타일과 침대에서 바

36) 헤어스타일,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37) 스타일링,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3197400>

38) P. Storm, *Functions of Dress: Tool of Culture and the Individua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7), p. 44.

로 나온 듯한 헝클러진 머리스타일, 그리고 자연 곱슬머리 스타일이 하위문화의 헤어스타일로 사용되었다.

1) 긴 머리 스타일

긴 머리 스타일은 비트스타일에서 실존주의적 가치에 행동의 공허함, 사회적 변화에 대한 허무주의를 표현한 반면, 파도타기의 서퍼와 뉴 에이지 트레블러 스타일에서는 자연과 조화로우 살고자 하는 것으로³⁹⁾, 인디키드와 큐트 스타일(그림 1)에서의 긴 머리는 어린이 같은 스타일의 채택으로 순수성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가공되지 않고 매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2>의 히피 스타일에서는 주류사회의 백인 남성들을 짧고 깨끗한 머리가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 머리를 길게 길러 남성성의 도전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잠재적으로 자유를 주장하고 자연으로 돌아감을 상징화하였다⁴⁰⁾. 헤비메탈의 팬들인 헤드뱅어 스타일에서는 최악의 무질제함을 포함한 헤비메탈의 자기 도취와 성차별주의가 근거로 과도한 남성성의 과장을 긴 머리 스타일로 나타냈다(그림 3). 또한, 바이커들인 그리저 스타일에서는 독일군 첩모와 나치를 연상시키는 매개물과 함께 지배사회에 대한 저항 의지를 긴 머리로 표현했다⁴¹⁾.



<그림 1> 큐트의 긴 머리. Streetstyle, p. 123.



<그림 2> 히피의 긴 머리스타일. Streetstyle, p. 64.



<그림 3> 헤드뱅어의 긴 머리. Streetstyle, p. 81.

2) 헝클러진 머리 스타일

정돈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헝클러진 채로 그냥 놓아두는 흐트러진 스타일은 서구사회의 노동윤리를 거부하는 히피 스타일에서는 무질서와 정신의 혼미함을 반영되어 사용되었으며, 펑크 스타일에서는 치솟는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미래가 없다는 허무주의적 외침을, 그린지에서는 경제 불황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가지는 두려움과 적대감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3) 자연 곱슬머리 스타일

백인들은 일반적으로 곡모의 분포가 많아 자연



<그림 4> 서퍼의 자연곱슬머리. Streetstyle, p. 49.

39) 양미경, op. cit.

40) 권기영, “현대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이 지니는 의미: 젠더와 문화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8호 (2004), p. 1103.

41) 양미경, op. cit., p. 143.

〈표 2〉 무치장형 헤어스타일

| 헤어스타일 | 하위문화 스타일 | 시기 | 내적 의미 |
|-------------|-----------|--------|-------------------|
| 긴 머리 스타일 | 비트 | 1950년대 | 허무주의 |
| | 서피 | 1950년대 | 자연과의 조화, 순수 |
| | 로커 | 1960년대 | 자유 |
| | 사이키델릭 | 1960년대 | 자기도취, 환각 |
| | 히피 | 1960년대 | 자연으로 돌아감, 남성성의 도전 |
| | 그리저 | 1960년대 | 지배사회의 공격성, 분노 |
| | 헤드뱅어 | 1970년대 | 과도한 남성성 과시 |
| | 스케이터 | 1970년대 | 허무주의, 탈도시 |
| | 뉴에이지 트레블러 | 1980년대 | 자연 친화, 탈도시화 |
| | 인디키드 | 1980년대 | 진정성 추구 |
| | 큐트 | 1980년대 | 순수성 |
| 호트러진 머리 스타일 | 히피 | 1960년대 | 무질서와 정신의 혼미함 |
| | 핑크 | 1970년대 | 무기력함 |
| | 그런지 | 1990년대 | 무기력함 |
| 자연 곱슬머리 스타일 | 서피 | 1950년대 | 자연과의 조화 |
| | 히피 | 1960년대 | 일탈과 현실도피 |

적인 곱슬머리 스타일을 가진다. 이러한 백인들에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곱슬머리 스타일은 과도타기 스포츠에 참여하는 서피 스타일에서 자연과의 조화로 사용되었으며(그림 4), 인공에 대한 자연, 도시풍보다는 민속적인 삶의 양식의 히피에서는 일탈과 현실 도피의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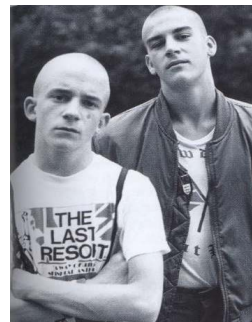
하위문화에 나타난 무치장형 헤어스타일은 〈표 2〉와 같다.

2. 제거형(Cutting Pattern)

제거형은 삭발 및 헤어 킷을 통한 모발의 제거로 정의한다. 커트를 통한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제거형은 삭발, 짧은 헤어컷, 기하학적 컷, 새그(shag) 컷 등의 헤어 커트를 통한 헤어스타일이다.

1) 삭발

뺏뺏 깎은 상고머리형인 〈그림 5〉의 삭발은 스킨헤드의 가장 두드러진 외모의 특성으로 기성세대와 히피에 대한 이중의 반발을 상징하는데, 이는 청결과 공격적인 노동자 정체성을 의미하며, 여성



〈그림 5〉 스킨헤드의 삭발. *Streetstyle*, p. 71.

답지 않은 남성성의 과시로 표현되었다⁴²⁾. 하류층 무산 계급층인 핑크에서의 삭발 스타일은 히피 스타일들에 반대하여 사랑과 평화 대신에 공격적인 강인함의 표현이었다.

2) 헤어 컷

크루(crew) 컷은 브러시 컷(brush cut)이라고도 하며, 양옆과 뒤를 바짝 자른 짧은 머리형이다. 항공

42) A. Synnott, *The Body Social: Symbolism, Self, and Society* (London-New York: Routledge, 1993).

기 탑승원 등의 상고머리 짧은 머리형은 원래 효율성, 야망, 권위와의 순종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⁴³⁾. 흑인 리듬앤 블루스와 귀족적인 에드워드 조 스타일을 병치시킨 비트에서 크루 컷의 상징적 문화적 의미들은 사회적 열망과 사회적 실재를 표현한다⁴⁴⁾. 즉, 주류문화의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그들은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려는 의도와 그에 따른 지위를 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⁴⁵⁾.

짧은 머리에 면도로 무늬를 넣은 헤어스타일은 힙합 매니아들의 짧은 머리에 면도로 VW 로고를 새긴 헤어스타일(close shave)을 하였다(그림 6). 1980년대 런던을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인 힙합 스타일은 공공연한 대중문화의 상징만큼이나 오프 꾸뛰르의 엘리트적 상징을 채택하고 전유하며 준거로 삼았다. 이는 힙합 스타일의 헤어스타일도 적용되어 아주 짧게 자른 후 면도로 간결한 구찌, 샤넬, Volkswagen, BMW, Mercedes 같은 로고를 넣었다⁴⁶⁾. 즉, 엘리트적 상징을 채택하고 전유하여 모두가 갖기를 열망하는 값 비싼 상표에 의존하는 힙합의 특징으로, 헤어스타일에서 그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이후 랩과 레게의 융합인 라가머핀에서도 짧은 머리에 면도로 무늬를 넣은 헤어스타일은 라스타의 반대이며 쾌락적 청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라가 머핀의 의미와 같이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테크노 스타일에서는 구레나룻을 수

평으로 자른 테크노 컷으로 기술과 미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새그(shag)는 거친 털이나 길게 난 털 또는 직물로 짠 원단에 있는 보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단어의 형용사인 새기(shaggy)는 솜털같이 보풀이 있는 또는 까칠까칠한 모양을 뜻한다. <그림 7>에서 그램 록의 지기 스타더스트(ziggy Stardust)의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는 얇은 풍성하게 부풀리고 뒷목덜미는 면도로 밀어 만든 새그 컷(shag cut)으로 글램 스타일의 양성성과 양성애적 요소를 잘 반영하였다. 남성의 이미지와 여성의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혼동함으로써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하위문화에 나타난 제거형 헤어스타일은 <표 3>과 같다.



<그림 6> 면도로 무늬를 넣은 짧은 머리. *haircults*, p. 106.



<그림 7> 데이비드 보위의 새그컷. *haircults*, p. 66.

<표 3> 하위문화에 나타난 제거형 헤어스타일

| 헤어스타일 | 하위문화 스타일 | 시기 | 내적 의미 |
|------------------|----------|--------|------------------------------------|
| 크루 컷 | 테디보이 | 1950년대 | 백인 상류 계급 열망(사회적 열망) |
| 삭발 | 스킨헤드 | 1960년대 | 무정함, 남성다움, 노동계급다움 |
| | 펑크 | 1970년대 | 강인함 |
| 면도로 무늬를 넣은 짧은 머리 | 힙합(비보이) | 1980년대 | 부의 열망 |
| | 라가머핀 | 1980년대 | 부와 성공 과시, 개인주의 찬양 |
| 테크노 컷 | 테크노 | 1990년대 | 남성성 과장, 로봇같은 금속적이고 단절된 표현으로 미래적 상상 |
| 새그(shag) 컷 | 글램 | 1970년대 | 남성관의 도전 |
| | 헤드뱅어 | 1970년대 | 극단적 남성성에 과장 |

43) Dick Hebdige, *Subcultures: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1995), pp. 104-105.

44) Tony Jefferson, Cultural Response of the Teds, in S. Hall et al, eds,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3), p. 81.

45) Tony Jefferson, op. cit., pp. 81-86.

46) Dylan Jones, *Haircuts: Fifty Years of Styles and Cut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0), p. 105.

3. 정형(Set Pattern)

정형은 모양을 가지런히 한 헤어스타일로 정의한다. 하위문화 헤어스타일의 정형은 콩크, 덕스테일, 짧고 단정한 머리 등의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8〉은 Ike Turner의 콩크 헤어스타일로, 콩크 헤어스타일(conked hairstyle)은 양젓물과 계란을 섞어 만든 콩클린을 가지고 백인처럼 머리를 곧게 만드는 것이다. 콩크 헤어스타일은 계급, 인종, 문화적 긴장을 구체화 한 것으로 1930년대 주트 스타일에 나타났다. 주트 스타일은 지배문화와 그에 수반하는 인종주의, 애국심에 저항하는 정체성을 타협하게 하고, 흑인 부르조아나 남부 이민자들의 지배적, 고정 관념적 이미지같이 보이는 것에 대한 거절을 의미한다. 1940년대 미국 흑인들의 주트 스타일에 나타난 콩크 헤어스타일은 백인의 기준에 맞춰 멋있게 보이고 매력 있는 멋진 남자를 과시하는 것인데, 콩크머리의 채택은 외모에 있어서 백인 표준에의 목종을 표현하는 것이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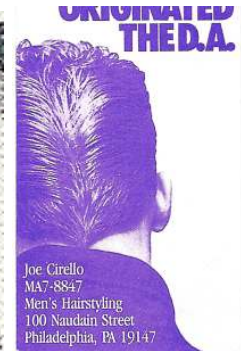
덕스 테일(Duck's tail)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에 머릿기름을 잔뜩 발라 뒤로 빗어 넘겨 목 뒷부분에서 뽕뽕하게 만든 헤어스타일로 테디보이 스타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이다(그림 9). 턴에이저 집단이 중심이 된 테디보이 스타일은 앞머리에 크게 킈을 주고 옆머리는 뒤로 날리며 뒷부분을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기존의 규범에 반기를 든 최초의 영국 남성의 헤어스타일이다(그림 10)⁴⁸⁾.

‘less is more’라는 어휘로 상징되는 모즈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은 단순지향적 미래주의적 스타일을 시도하여 계급을 넘어선 미적 취향을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나타냈다(그림 11). 즉, 모즈는 외모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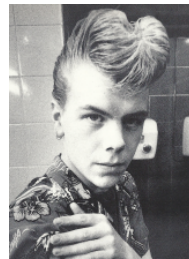
여가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의 신분을 보상받고자 하였고, 모즈들에 앞선 테디보이들의 구식 스타일과 계급에 근거한 정체성에 대한 거부로 언제나 짧게 손질하여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었다. 또한, 여성은 꼬마 요정 스타일로 말아 올린 헤어스타일로 대응되었다. 하위문화에 나타난 정형 헤어스타일은 〈표 4〉와 같다.



〈그림 8〉 콩크 헤어. *haircults*, p. 37.



〈그림 9〉 덕스테일. *haircults*, p. 21.



〈그림 10〉 테디보이. *haircults*, p. 32.



〈그림 11〉 단정한 헤어스타일. *haircults*, p. 48.

〈표 4〉 하위문화에 나타난 정형 헤어스타일

| 헤어스타일 | 하위문화 스타일 | 시기 | 내적 의미 |
|--------------------|----------|--------|--------------------|
| 콩크 헤어스타일 | 주트 | 1930년대 | 백인 기준의 매력 있는 멋진 남자 |
| 덕스테일 헤어스타일 | 테디보이 | 1950년대 | 남성관의 도전 |
| 고정된 교수머리(엘비스 스타일) | 로커빌리 | 1950년대 | 퇴폐적 |
| 말아 올린(꼬마 요정) 헤어스타일 | 모즈 | 1960년대 | 성 구분의 모호 |
| 짧고 단정한 머리 | 모즈 | 1960년대 | 동성애적 경향 |

47) Ted Polhemus, op. cit., p. 17.

48) Dylan Jones, op. cit., p. 26.

4. 과장형(Exaggerated Pattern)

과장형은 머리카락을 부풀려 과장한 헤어스타일로 정의한다.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과장형 헤어스타일에는 부풀린 헤어스타일, 아프로 스타일, 모히칸 스타일, 스파이크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1) 부풀린 헤어스타일

1970년대 펑크 스타일에서 폭탄을 맞은 것처럼 부풀린 정신없는 머리스타일은 멀리서 보면 색색의 쿵이 걸어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다⁴⁹⁾. 이는 노동계급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속박되어 있는 무기력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Siouxsie sioux가 창안한 80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스 스타일에 나타난 부풀린 헤어스타일은 중세의, 야만의, 괴기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gothic”에서 따온 것으로 거미줄같이 부풀린 헤어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고딕 앤드로지니라고 불리는 젊은 남녀들에 의해 모방되었으며, 과격하고 반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그림 12)⁵⁰⁾. 동그랗게 부푼 헤어스타일은 섹슈얼 환타지의 한 형태로서 기본적인 성적 교감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관능적이며 예로틱하고 감각적인 것이 특징이다⁵¹⁾.

2) 아프로 헤어스타일

흑인 특유의 머리질감과 부피감을 가공하지 않고 커다랗게 부풀려 연출한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아프리카의 민속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그림 13). 꼬불꼬불한 머리상태가 흑인의 머리카락 구조인 바이라테탈 이라는 웨이브의 외측 요소가 백인이나 동양인의 것과는 다른 구조로 항상 곱슬한 상태를 유지해 빗으로 빗어 세우면 크고 둥근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아프로 스타일은 50년대와 60년대 민권 운동과 흑인 파워 운동이 주창한 ‘black is beautiful’의 상징으로서, 흑인의 긍지를 표시하는 가



<그림 12> 부풀린 헤어스 <그림 13> 아프로 헤어스
타일. *Streetstyle*, p. 98. 타일. *haircults*, p. 59.

장 뚜렷한 이미지이자 60년대 후반의 반문화적인 초상의 일부분이며, 패션이라기보다 흑인의 파워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적 색채가 짙어 가장 강력한 블랙 파워의 스타일 정치학이라 할 수 있다⁵²⁾. 1970년대 초반 펑크(funk) 스타일에서는 신흥 부자의 화려함과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특히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백인 사회에 대한 긍지로 채택되었다⁵³⁾. 즉, 흑인들이 백인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던 헤어스타일이다.

3) 스파이크 헤어스타일

스파이크(spike)는 ‘긴 못, 담장 못, 길고 뾰족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스파이크 헤어는 머리를 비비 꼬아 머리 위에 뾰족한 송곳들이 여러 개 꽂혀져 있는 모양을 말한다. 이 머리는 무질서하고 폭발하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스파이크 스타일의 긴 머리는 하나하나를 딱딱하게 뭉치거나 편편하게 펴서 쪽 뺨게 만들었다(그림 14)⁵⁴⁾. 쪽 뺨은 스파이크 끝은 찢릴 것 같이 뾰족해서 가까이 갈 수 없이 위협적이고 그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고뇌와 불만이, 공격적인 펑크의 스파이크 헤어스타일에 나타나 있다.

49) 공차숙, op. cit.,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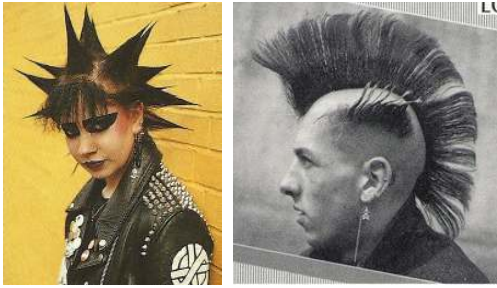
50) 권기영, op. cit., p. 68.

51) 김정미, 설유진, op. cit., p. 230.

52) 권기영, op. cit., p. 1103

53) Kobena Mercer, Black Hair: Style Politics (1987), in *The Subcultures Reader* (1997), pp. 420-424.

54) 공차숙, op. cit., pp. 50-51.



〈그림 14〉 스파이크 헤어스타일. *haircults*, p. 83.
 〈그림 15〉 모히칸 헤어스타일. *haircults*, p. 82.

4) 모히칸 헤어스타일

모히칸(Mohican) 헤어스타일은 수탉의 벼슬 모양처럼 머리 양쪽 측면을 극도로 짧게 자르거나 면도를 하고 앞이마부터 뒷 목덜미까지 넓은 부채모양으로 잘라 뿔뿔이 고정시킨 것이다(그림 15)⁵⁵⁾. 치수는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미래가 없다는 펑크의 허무주의적 외침이 보다 현실적으로 헤어스타일을 통해 엉뚱하고 무시무시하게 과장된 헤어스타일로 표현되었다.

하위문화에 나타난 과장형 헤어스타일은 〈표 5〉와 같다.

5. 땃은형(Braid Pattern)

땃은형은 머리카락을 땃거나 땃아 로프 모양으로 내려뜨린 헤어스타일로 정의한다.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땃은형 헤어스타일에는 땃은 헤어스타일과 드레드락(dreadlocks)으로 나타났다.

〈표 5〉 하위문화에 나타난 과장형 헤어스타일

| 헤어스타일 | 하위문화 스타일 | 시기 | 내적 의미 |
|------------|----------|--------|----------------------------|
| 부풀린 헤어스타일 | 펑크 | 1970년대 | 무기력함 |
| | 고스 | 1980년대 | 부정적 견해, 신비함, 폐타시, 퇴폐적, 음울함 |
| 아프로 헤어스타일 | 히피 | 1960년대 | 흑인 정체성 |
| | 힙크 | 1970년대 | 성공 과시 |
| 스파이크 헤어스타일 | 펑크 | 1970년대 | 공포감, 허무주의, 힘의 과시 |
| 모히칸 헤어스타일 | 펑크 | 1970년대 | 좌절, 절망, 분노, 공포의 풍자적 표현 |

55) 엄소희, *op. cit.*, p. 30.

56) 공차숙, *op. cit.*,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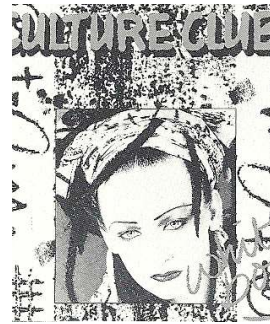
1) 땃은형

땃은 헤어스타일은 세 가닥 땃기네 가닥 땃기 등 여러 방법으로 손질한 머리 모양을 말하는데, 히피들의 땃은 헤어스타일은 인디언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미국 주류 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향수에서 싹튼 에스닉풍이다. 특히 히피들은 인디언들과 백인들에게 생활 구역을 빼앗긴 아메리칸 인디언 보호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 인디언들의 땃은 헤어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인디언들의 이러한 운동은 지배층에 대한 반발운동으로 반문화운동인 히피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서구 중심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경향과 맞아 떨어져 인디언의 자연주의 경향을 수용하게 되었다⁵⁶⁾.

2) 드레드락

드레드락(dradlocks)은 머리카락을 가늘게 땃아서 로프 모양으로 내려뜨린 서인도 제도인들의 헤어스타일로 곱슬곱슬한 흑인들의 머리가 일부러 땃지 않아도 몇 무더기로 꼬여 뭉친 스타일이다. 라스타파리(rastafari)를 신으로 추앙하는 자메이카 흑인인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ism)의 대표적인 스타일로서 노예로 팔려온 자메이카 흑인들의 백인 고유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전복의 상징이다. 드레드(dread)는 공포(fear)를 의미하며, 그 형태는 진흙을 묻힌 길게 꼬은 로프의 모양새를 가졌다. 이것은 아프리카 여인의 전통적인 스타일로서 사자를 상징한 것이며, 이 스타일은 흑인들이 머리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다. 드레드

락 헤어스타일을 한다는 것은 구약성서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가르침을 엄격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60년대 후반, 자메이카와 미국에서는 아프로 헤어스타일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수적인 흑인들은 곱슬거리는 머리를 하류층의 상징으로 여기고 곧은 머리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이들의 드레드락 헤어스타일은 백인 사회에의 완전한 거부로 이는 원래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전사들이 사자갈기의 공격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스타일이었고, 곱슬머리를 하든지 타래를 만들든가 매듭지도록 했다(그림 16). 1980년대 백인 중심의 소비문화를 조롱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열망하는 양면적 기반을 토대로 구축된 힙합 스타일에서 드레드락 헤어스타일은 흑인들의 정체성과 소수 민족의 관심 고조, 자유분방한 욕구 분출로 사용되었다. 뉴에이지 트레블러 스타일에서는 자연에의 친화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림 18〉 보이조지의 드레드락. *haircults*, p. 101.

(그림 17). 이후 드레드락 헤어스타일은 문화, 성, 음악적 코드가 믹스된 컬처클럽의 보이조지에 의해 종교적 의미 없는 성적 화이트 라스타(white lasta)로 사용되었다(그림 18)⁵⁸⁾. 이는 글램 록의 데이비드 보이와 같이 고정관념에 대한 재 사고를 의미한다. 하위문화에 나타난 땅은형 헤어스타일은 〈표 6〉과 같다.



〈그림 16〉 라스타파리언의 드레드락. *haircults*, p. 88. 〈그림 17〉 뉴에이지트레블러의 드레드락. *Streetstyle*, p. 113.

6. 염색형(Color Pattern)

염색형은 모발의 색으로 모발의 고유색을 포함하여 염색한 머리색으로 정의한다. 모발의 색은 인종에 따라 각기 그 색상을 달리하고 있다. 하위문화 스타일에서의 머리 색(hair color)은 자연스런 색, 금색, 은색과 형광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색이 나타났다.

1) 자연스런 머리색

자연스런 머리색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표 6〉 하위문화에 나타난 땅은형 헤어스타일

| 헤어스타일 | 하위문화 스타일 | 시기 | 내적 의미 |
|----------|-----------|--------|--------------------------|
| 땅은 헤어스타일 | 히피 | 1960년대 | 소수 민족의 민족성, 신비 |
| 드레드락 | 라스타파리언 | 1970년대 |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정체성 |
| | 뉴 로맨틱스 | 1980년대 | 화이트 라스타 |
| | 힙합 | 1980년대 | 소수 민족의 관심 고조/자유분방한 욕구 분출 |
| | 뉴에이지 트레블러 | 1980년대 | 자연 친화/에코운동 |

57) Zeshu Takamura, *Root of Street Style* (Tokyo: Gaph Sha, 1997), p. 140.

58) Dylan Jones, op. cit., p. 101.



〈그림 19〉 서퍼.
Streetstyle, p. 49.

운동이 인간의 신체인 머리카락에도 적용시켜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점차 color의 이미지가 의식되었다⁵⁹⁾. 자연과의 조화하는 것과 순수를 동일시하는 서퍼 스타일에서 자연스런 머리색을 사용하였으며(그림 19), 히피에서 역시 자연스러운 머리 염색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로 나타냈다. 즉, 자연 보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자연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칼라에 대한 의식 또한 상승, 헤어스타일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보다 역행하지 않은 질서와 인간 존중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2) 원색의 머리색

일반적인 사람들이 염색을 하는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흰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던 염색에 반해 펑크나 밝은 그린, 자주, 블루, 오렌지 등 다양한 원색의 염색머리는 다른 집단과 현격하게 구별시키며, 젊은이들의 순수한 생명력 및 성에 대한 급진적 사고를 표현하는 등 저항과 일탈을 상징하였다.

문화를 통틀어 펑크 스타일은 가장 머리의 색이 다양하고 현란한 색조를 사용하였다. 때로는 펑크들의 이러한 머리색이 기존 세대들에게 충격을 주어 부정적으로 비춰지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림 20〉의 펑크 스타일에서는 머리를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의 형광물감으로 물들였는데, 머리를 염

색하는 것은 전통 오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과장된 듯 한 지나친 표백이지만 펑크족에게는 젊은이들의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혹은 가장 커다란 가능성의 상징으로 쓰였다⁶⁰⁾. 1970년대 스케이더 스타일에서도 황량한 버려진 곳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조각으로 사용하여 만든 램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아웃사이더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색색의 머리 염색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1). 이외에도 사이코 빌리 스타일에서는 앞이마에 늘어 붙인 남성의 고수머리와 함께 원색의 머리 염색으로 광란적 파괴를 표현하였다. 뉴에이즈 트레블러 스타일에서는 주류사회에서 벗어나 항상 여행을 하며 자연에의 친화와 뉴 에이지 정신으로 자연스러운 포크 스타일과 펑크들의 맹렬한 머리색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였다(그림 22).

한편, 그램 록의 스타 지기 스타더스트로 알려진



〈그림 20〉 펑크.
Streetstyle, p. 91.



〈그림 21〉 스케이더.
Streetstyle, p. 87.



〈그림 22〉 뉴에이지트레블러. *Streetstyle*, p. 113.

59) 이기봉, *Art of Hair Coloring* (대전: 혜성출판사, 2004), p. 12.

60)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32.

<표 7> 하위문화에 나타난 염색형

| 색상 | 하위문화 스타일 | 시기 | 내적 의미 |
|---------------|-----------|--------|--------------------|
| 자연스런 색 | 서퍼 | 1950년대 | 자연과의 조화 |
| | 히피 | 1960년대 | 자연 친화, 사랑과 화합의 상징 |
| 여러 가지 원색(형광색) | 글램 | 1970년대 | 남성관에 급진적인 재사고(양성성) |
| | 스케이터 | 1970년대 | 허무주의 |
| | 핑크 | 1970년대 | 젊음의 순수한 생명력 |
| | 사이코빌리 | 1980년대 | 광란적 파괴 |
| | 뉴에이지 트레블러 | 1980년대 | 젊음, 순수한 생명력 |

데이비드 보이는 녹색, 오렌지색으로 염색하여 성적으로 모호한 외계인 같은 록 수퍼 스타를 표현하였다. 즉, 양성적인 외모로 성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한 글램(Glam)은 괴상한 색깔로 염색된 머리 등으로 남성관에 대한 급진적인 재 사고를 의미했다⁶¹⁾.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컬러인 염색형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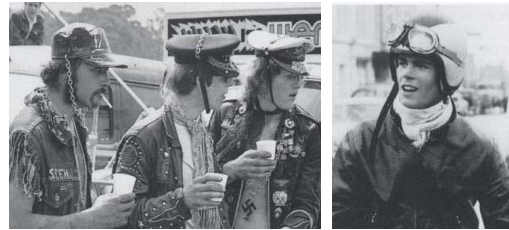
7. 첨가형(Addition Pattern)

첨가형은 모발에 기타 장식을 첨가한 헤어스타일로 정의한다.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에는 모자, 헬멧, 그리고 헤어 밴드 등이 첨가되어 나타났다.

1) 모자

헬멧은 머리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로, 특히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헬멧 가운데 제트 헬멧(jet helmet)은 제트기의 조종사나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쓰는 헬멧으로, 바이커에서 무법자의 남성적 이미지와 저항 정신으로 사용되었고, 영국 바이커들인 로커와 그리저에서도 독일 군 군모가 나타났으며(그림 23), 톤 업 보이 스타일에서는 불량배의 남성미를 강조하는 아이템으로 헤어스타일에 사용되었다(그림 24). 반면, 1990년대 테크노에서 전유한 군모는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연출을 헤어스타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스테이슨(stetson) 모자는 웨스턴 스타일로 험난한 역경을 이겨낸 카우보이의 승리와 결단력으로



<그림 23> 그리저 군모. Streetstyle, p. 68.

<그림 24> 톤 업 보이 제트헬멧. Streetstyle, p. 47.

모든 미국인들이 변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을 제공하였다. 헐리우드 영화 속의 카우보이들에 의해 입혀지던 웨스턴 스타일은 광의로 원주민 스타일도 포함한다. 카우보이는 19세기에 서부를 제패했지만 20세기에 와서는 미국인 모두에게 공통된 정체감을 주었다⁶²⁾. 카우 모자로 불리는 스테이슨 모자는 이 웨스턴 스타일의 중요한 장식 첨가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상징한다. 즉, 역경을 이겨낸 카우보이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번영의 아메리칸 상징을 제공한다.

모비 캡(moby cap)은 흰 비닐과 검은 플라스틱으로 크라운이 부풀려져 있는 모자로, 영화 배우 말론브란도가 전유했었다. 모비 캡은 장식이 강조된 로커 스타일에서 사용됨으로써 스타일을 만들었다.

탐(tam)은 이디오피아의 국기에서 따온 흑인 노예의 피를 상징하는 적색, 빛나는 태양을 상징하는 황색, 그리고 아프리카의 초원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된 니트 캡이다(그림 25)⁶³⁾. 라스타파리안 스타

61) 양미경, op. cit., p. 79.
62) 양미경, op. cit., p. 26.



〈그림 25〉 라스타파리언의 탬. *Streetstyle*, p. 78. 〈그림 26〉 핑크 펌프 모바일 모자. *Streetstyle*, p. 72.

일에서 탬은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에 첨가되어 서 인도계도 사람들의 정체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흑인 빈민가에서 나타난 핑크 스타일의 펌프모바일(pimpmobile) 모자는 성공적인 부를 과시하기 위한 핑크의 크고 과시적인 스타일을 잘 나타냈으며, 차양이 아주 짧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모자인 헌팅 캡은 크고 둥근 잠자리 안경, 굵이 5인치나 되는 플랫폼 슈즈 등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그림 26).

챙이 없고 둥글납작하게 생긴 모자인 베레모는 비밥이라는 대중음악의 스타일에 의해 힙스터의 정체성을 나타냈다. 베레모는 재즈를 사랑하는 보헤미안들에게 붙여진 비트에도 사용되었으며, 소울 음악과 함께 모즈 스타일에서, 블루비트(bluebeat), 스카(ska), 록스테디(rocksteady) 음악을 즐겼던 루드보이에서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베레모는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

삼각형의 트리콘 모자는 1980년대 양성적 문화의 뉴 로맨틱 스타일을 이국적 환상과 마치 가장 무도회 같은 극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힙합 스타일인 올드스쿨에서 헤드 스피너를 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칸골(kangol) 모자나 Adidas 캡을 사용하였다. 칸골은 원래 영국의 왕실이 애호했던 브랜드다. 즉, 힙합 스타일에서 kangol 모자나 Adidas 캡은 백인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겪는 흑인들이 주로 백인들이 자아 표현으로 입는 하이 클래식

스 브랜드를 착용함으로써 조소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힙합 스타일의 갱스터(Gansta)에서는 watch cap이나 야구 모자를 헤어스타일에 첨가하였다. Watch cap은 원래 어부들이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썼던 니트 소재의 캡으로, 계도의 고달픈 삶에 대한 분노의 정체성으로 사용되었다.

2) 헤어 밴드

헤어 밴드는 머리의 앞부분이나 머리카락 위에 하는 띠로,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오지 않게 하거나 장식에 사용된다.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 밴드는 1980년대 후반 옥외 댄스파티의 하우스 음악을 즐기는 레이버 스타일에서 격렬한 춤 동작 수반에 따라 반디나를 첨가하였다. 히피들은 느슨하게 땀을 머리에 헤어 밴드나 가죽 끈을 첨가한 헤어스타일로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위문화에 나타난 장식 첨가형은 <표 8>과 같다.

이처럼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각 하위문화의 동질성을 잘 반영하며, 다른 하위문화 집단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그들의 내면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상징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하위문화의 개념과 시대별 하위문화 스타일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이 가지는 내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유형은 무치장형, 제거형, 과장형, 정형, 땀은형, 염색형, 첨가형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문화에 나타난 무치장형의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스타일, 흐트러진 헤어스타일, 자연 곱슬머리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과의 조화 및 순수성, 하위문화의 진정성의 추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둘째, 하위문화에 나타난 제거형 헤어스타일은 주류계급의 헤어스타일을 통한 사회적 열망이 담

63) Dick Hebdige, op. cit., p. 66.

〈표 8〉 하위문화에 나타난 첨가형

| 모자 및 헤어 밴드 | 하위문화 스타일 | 시기 | 내적 의미 |
|------------|----------|--------|------------------------|
| 제트헬멧 | 바이커 | 1940년대 | 무법자의 남성적 이미지와 저항정신 |
| | 톤 업 보이 | 1950년대 | 불량배, 남성미 강조 |
| 군모 | 그리저 | 1960년대 | 공격성, 분노 |
| | 로커 | 1960년대 | 남성미, 지위의 부정적 주장 |
| | 로커 | 1960년대 | 남성미, 불량배 |
| | 테크노 | 1990년대 | 미래적 상상 |
| 스테이션 모자 | 웨스턴 | 1940년대 | 아메리칸 드림 |
| | 힙스터 | 1950년대 | 음악적 스타일 |
| 검은 베레 | 비트 | 1950년대 | 권태로운 만족감과 일상에서 탈피 |
| | 모즈 | 1960년대 | 낮은 지위의 보상 |
| | 루드보이 | 1960년대 | 직업전망, 인종적 차별대우권위의 불손 |
| | 로커 | 1960년대 | 남성미, 지위의 부정적 주장 |
| 모비 캡 | 로커 | 1960년대 | 남성미, 지위의 부정적 주장 |
| 탐 모자 | 라스타파리언 | 1970년대 | 아프리카인의 정체성 |
| 핌프 모바일 모자 | 힝크 | 1970년대 | 부의 과시, 성적매력 |
| 헌팅캡 | 힝크 | 1970년대 | 부의 과시 |
| 크라운 헬멧 | 뉴로맨틱스 | 1980년대 | 퇴폐적, 시각적 충격 |
| 트리콘 모자 | 뉴로맨틱스 | 1980년대 | 퇴폐적, 시각적 충격 |
| Adidas cap | 힙합(올드스쿨) | 1980년대 | 보호, 부의 과시 |
| Kangol 모자 | 힙합(올드스쿨) | 1980년대 | 부의 과시 |
| Watch cap | 힙합 | 1980년대 | 계토의 고달픈 삶에 대한 분노 |
| 반디나 | 레이버 | 1980년대 | 자유분방함, 기능성, 구속과 억압에 반항 |
| 꽃장식 | 히피 | 1960년대 | 사랑, 평화, 반전 |
| 구슬핀 머리띠 | 히피 | 1960년대 | 사랑, 평화, 반전 |
| 가죽끈, 헤어 밴드 | 히피 | 1960년대 | 사랑, 평화, 반전 |

거있는 경우와 극도로 짧은 제거형 헤어스타일에서는 극단적인 남성성과 강함을 표현하고자 사용되었다.

셋째, 하위문화에 나타난 정형 헤어스타일의 채택으로 백인 기준의 미적 취향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의 신분을 보상받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기존의 성적 정체성을 전복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만들었다.

넷째, 하위문화에 나타난 과장형 헤어스타일은 소수 민족의 백인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넘어선 그들의 정체성과 암울한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하위문화에 나타난 땡은형 헤어스타일은 지배층의 반발에 대한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상

징하였고, 한편으로는 소수 민족의 관심 및 자원을 표현하였다.

여섯째, 하위문화에 나타난 염색형은 자연과 조화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머리색으로, 다른 한편으로 원색의 머리색으로 젊음, 순수한 생명력, 파괴 등을 상징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문화에 나타난 첨가형 헤어스타일은 대중음악의 특징적 스타일로, 무법자의 남성적 이미지와 저항정신, 정체성 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주류계급 기준의 미적 취향을 전유하여 낮은 신분을 보상받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조소를 보내는 양면성이 나타났다. 또한 소수 민족의 고유한 헤어

스타일을 전유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현실적 좌절을 엉뚱하게 인위적이고 위협적인 헤어스타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그들의 내면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며, 헤어스타일은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라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공차숙 (2002).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연구: 히피와 펑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영 (2004). “현대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이 지니는 의미: 젠더와 문화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8호.
- 김문섭 (1999). “사회구조와 청소년의 비행적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학회지* 2권 2호.
- 김민자 (1987).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 김정미, 설유진 (2006).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권 2호.
- 김창남 (1994).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현에 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섭 (2001). *서태지 답론: 신화의 부활*. 서울: 책이 있는 마을.
- 박길순, 손향미, 박수진, 윤소영 (2009). *패션 이미지 스타일링*. 대전: 궁미디어.
- 박길순, 이수인 (1999).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7권 4호.
- 손향미 (2005). “현대 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권 11호.
- 손향미 (2007). “현대 뷰티 및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분석: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복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경 (2003).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소희 (1988).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 (1997). “스트리트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Young Women's Style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봉 (2004). *Art of Hair Coloring*. 대전: 혜성출판사.
- 이동연 (1997). *하위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끼들*. 서울: 문화과학사.
- 이연희, 김주애 (2005). “핑크 헤어스타일의 근원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9권 2호.
- 이정후, 양숙희 (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복식* 45권.
- 이청자 (2002). “히피 패션에 나타난 히피 헤어스타일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혁 (200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혁, 김민자 (2003).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3호.
- Haye, A. and C. Dingwall (1996). *Surfers Soulies Skinheade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V&M Museum.
- Hebdige, D. (1995).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 Jones, D. (1990). *Haircuts: Fifty Years of Styles and Cuts*. London: Thames & Hudson.
- Gelder, K. and S. Thornton (1997). *The Subcultures Reader*. London-New York: Routledge.
- Costantino, M. (1997). *Men's Fashion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Frock Coats to Intelligent Fibres*. New York: Costume & Fashion Press.
- Storm, P. (1987). *Functions of Dress: Tool of Culture and the Individua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Synnott, A. (1993). *The Body Social: Symbolism, Self, and Society*. London-New York: Routledge.
- Polhemus, T. (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 Jefferson, T. (1993). Cultural Response of the Teds. in S. Hall et al, des,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Takamura, Z. (1997). *Root of Street Style*. Tokyo: Gaph Sha.